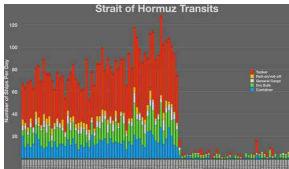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중동 호르무즈 해협 안보 위기 상황과 전망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이란 핵 시설 공격에서 점차 중동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확대되면서 세계 에너지 물동량 흐름과 석유·화학제품 공급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국제위기관리감시단(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은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선제적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감행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 흐름의 핵심 병목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최소 3척의 유조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다수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2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지난 3월 1일까지 약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였으나, 3월 2일 이후에는 유조선의 통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지난 5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 국제판은 현재 약 1,200척의 선박이 걸프만 지역에서 닻을 내린 채 대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들 유조선과 LNG 운반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통과 가능한 상태인지, 누가 항행 안전을 보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동시에 국제 해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보유한 머스크(Maersk), CMA CGM, 합파그 로이드(Hapag-Lloyd) 등 주요 해운회사들은 미국해군과 예멘 후티(Houthi) 반군 간 홍해 충돌이 지속되자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경유하는 우회 항로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해운 체계는 적시 생산(Just-in-Time)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비하는 적시 대응(Just-in-Case) 체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지난 5월 30일 CNBC는 향후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누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를 번복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상당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제 해운회사들은 걸프만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를 육로로 홍해 연안 항구 또는 오만 지역 항구로 수송한 뒤 해상 운송을 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약 130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 요충지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이란이 그동안 운용해 온 호르무즈 해협 쌍방향 통항체계(Two Separate Traffic Separation Scheme: TSS)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각각 제시한 대체 항로 역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선박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폭 약 20마일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항행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암초 충돌, 좌초, 선박 간 충돌 등 다양한 해상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해상교통로의 병목 지역인 주요 해협(Strait)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기준에 따라 항행 안전이 보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7일 NYT 국제판은 미국과 이란 간 정전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해군이 투입되어 해상 기뢰를 제거하고, 이란이 그동안 운용해 온 TSS 체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 주^(週), 즉 약 30~4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 재개를 위해서는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항행 안전 보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비록 홍해를 경유하는 수에즈 운하 항로가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해운회사 입장에서는 홍해 입구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잠재적 위험(Potential Risks)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수송로 확보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미국의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은 이란 핵 시설 공격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불안정을 초래하는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국제 해운 체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국제적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수송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미지 설명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현황(2026년 2월~4월)
(출처: IMF, 2026년 4월 21일)

* 이미지 출처 : www.wikipedia.org

* 내용 출처: NYT, May 17, 2026; The Brookings, May 22, 2026; ICG, May 29, 2026; CNBC, May 30, 2026.

*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